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2. 단어 (정답 및 해설)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03 언어

본문 61~64쪽

- 01 ③ 02 ⑤ 03 ③ 04 ①
05 ③ 06 ②

01 형태소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살-’과 ‘있-’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이며,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실질 형태소는 ‘오늘, 꽃, 잎, 날-’ 4개이고, 형식 형태소는 ‘은, 이, 휘-, -리-, -었-, -다’ 6개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가)의 ‘휘날렸다’는 ‘휘-, ‘날-, ‘-리-, ‘-었-, ‘-다’로 분석되며 이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자립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나)의 ‘-다가’, ‘-면’은 연결 어미, ‘-르’는 관형사형 어미, ‘-다’는 종결 어미이고, 이들 모두 어미이므로 이들이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⑤ (다)에는 자립 형태소 ‘그, 곳, 아직’ 3개와 실질 형태소 ‘그, 곳, 아직, 많-, 춤-’ 5개가 존재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2 단어의 분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장대높이뛰기’의 직접 구성 요소는 ‘장대’, ‘높이뛰기’이다. 따라서 직접 구성 요소를 ‘장대높이’와 ‘뛰기’로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눈높이’는 어근 ‘눈’과 어근 ‘높이(높- + -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팔죽집’은 어근 ‘팔죽(팔 + 죽)’과 어근 ‘집’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미달이’는 어근 ‘미달-(밀- + 달-)’과 접미사 ‘-이’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겉넓이’는 어근 ‘겉’과 어근 ‘넓이(넓- + -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03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잠꾸러기’와 ‘욕심꾸러기’는 모두 명사이며, 어근인 ‘잠’과 ‘욕

심’도 역시 명사이다. 따라서 어근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하면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저고리’는 명사이고 ‘대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접두사 ‘덧-’이 명사와 동사에 모두 결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군말’은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이라는 뜻이고, ‘군살’은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 따위 때문에 찐 군더더기 살’ 혹은 ‘헌데에 두드러지게 내민 군더더기 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접두사 ‘군-’이 어근에 ‘쓸데없는’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더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늦추다’는 ‘늦다’에 ‘-추-’를 결합하여 사동적 의미를 더한 것이고, ‘낮추다’는 ‘낮다’에 ‘-추-’를 결합하여 사동적 의미를 더한 것이므로 ‘-추-’가 어근 ‘늦-’과 ‘낮-’에 사동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과일’은 명사이고, ‘디디다’는 동사이다. ‘꽃-’과 ‘헛-’이 결합한 ‘꽃과일’도 명사이고, ‘헛디디다’도 동사이므로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4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곤잘’은 부사 ‘곤’과 부사 ‘잘’이 결합한 형태인데, 우리말 문장에서 부사와 부사가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은 일반적이므로 ‘곤잘’은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새신랑’은 관형사 ‘새’와 명사 ‘신랑’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덮밥’은 용언의 어간 ‘덮-’과 명사 ‘밥’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이른바’는 용언의 관형사형 ‘이른’과 명사 ‘바’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끓주리다’는 용언의 어간 ‘끓-’과 용언의 어간 ‘주리-’에 어미 ‘-다’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5 형태소의 개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어서’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교체되는 음운론적 이형태가 아니라 ‘하-’로 시작하는 어간 뒤에 나타나는 형태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서’와 ‘-아서’는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되는 목적격 조사이고 ‘를’은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되는 목적격 조사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 ② ‘-았-’은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ㅑ’일 때 쓰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었-’은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ㅑ’를 제외한 모음일 때 쓰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 ④ ‘와’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되는 부사격 조사이고 ‘과’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실현되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 ⑤ ‘-아라’는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ㅑ’일 때 쓰이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고 ‘-어라’는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ㅑ’를 제외한 모음일 때 쓰이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06 단어의 분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는 단일어에 해당하는 ‘구름, 하늘, 나비, 나무’가 들어갈 수 있고, (나)에는 합성어에 해당하는 ‘돌다리, 논밭, 곳곳, 하얀색’이 들어갈 수 있다. (다)에는 접두사가 결합한 ‘민무늬, 맨손, 군식구’가 들어갈 수 있고, (라)에는 접미사가 결합한 ‘정답다, 슬기롭다, 놀이, 넓이’가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가)~(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하늘, 논밭, 맨손, 정답다’이다.

04 언어

본문 65~68쪽

- | | | | |
|------|------|------|------|
| 01 ① | 02 ③ | 03 ⑤ | 04 ④ |
| 05 ② | 06 ⑤ | | |

01 품사의 개념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그는 공을 차고 있다.’의 ‘차다’는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린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 ‘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의 ‘차다’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두 단어의 형태가 같고 품사가 달라 품사의 통용 사례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 두 단어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품사의 통용 사례가 아니라 동음이의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사과 다섯 개를 샀다.’의 ‘다섯’은 수 관형사이고,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의 ‘다섯’은 수사이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주는 만큼 받는다.’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이건 정말이야.’의 ‘정말’은 명사이고, ‘그 약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는 알 수 없다.’의 ‘정말’은 부사이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형이 동생보다 발이 더 크다.’의 ‘크다’는 형용사이고,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하다.’의 ‘크다’는 동사이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다.

02 용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푸다’가 ‘피’와 같이 활용한 것은 어간의 ‘푸-’에서 ‘ㄴ’이 탈락한 것이므로 어미의 형태가 변한 불규칙 용언이 아니라 어간의 형태가 변한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짓다’는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므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 ② ‘묻다’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 ④ ‘뵙다’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 ⑤ ‘공부하다’는 활용할 때 어미 ‘-아/-어’가 ‘-여’로 형태가 변하므로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03 용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보조 용언 '버리다'는 '간식을 먹는' 행동의 지속을 강조하는 기능이 아니라 '간식을 먹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보조 용언 '나다'는 '책을 읽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의 보조 용언 '보다'는 '옷을 입는'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의 보조 용언 '대다'는 '웃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의 보조 용언 '싫다'는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4 관계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의 '에'는 앞말이 목표나 목적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따라서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 '에'의 사례로는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있다.'의 '에'는 앞말이 최초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오늘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의 '에'는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나는 요란한 천동소리에 잠을 깼다.'의 '에'는 앞말이 이유나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⑤ '나는 하루에 네 번씩 이를 닦는다.'의 '에'는 앞말이 기준이 되는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5 수식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이'는 지시 관형사인데, 다른 관형사인 '두'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인 '두 사람'을 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 관형사가 다른 관형사를 수식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옛'은 친구의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나)의 '두'는 사람의 수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다)의 관형사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과 형태가 같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라)의 '이 모든 현'에서 '이'는 지시 관형사, '모든'은 수 관형사, '현'은 성상 관형사에 해당한다. 여러 개의 관형사를 나열할 때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가 맨 뒤에 놓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6 어휘의 활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형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다.'의 '뼈'는 '어떤 의도나 저의(底意)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이 작품의 뼈만 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의 '뼈'는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나 핵심'이라는 의미로 둘 다 주변 의미에 해당한다. '뼈'의 중심 의미는 '척추동물의 살 속에서 그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물질'이다. 따라서 ㉠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는 축구를 하다 다리에 쥐가 났다.'의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으로 '다리'의 중심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이 식탁은 다리가 짧아 사용하기 불편하다.'의 '다리'는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으로 '다리'의 주변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나는 자꾸 기침이 나서 약을 먹었다.'의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의 의미로 '먹다'의 중심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숨이 물을 먹어서 무겁다.'의 '먹다'는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의 의미로 '먹다'의 주변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그는 백 살까지 살았다.'의 '살다'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로 '살다'의 중심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젓터미에 붙씨가 아직 살아 있다.'의 '살다'는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의 의미로 '살다'의 주변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아이가 밥을 먹으려 입을 벌렸다.'의 '입'은 '입술에서 후두(喉頭)까지의 부분'의 의미로 '입'의 중심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아들이 떠나면서 집에 입이 하나 줄었다.'의 '입'은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효'의 의미로 '입'의 주변 의미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언어 03

단어 ①

본문 60~63쪽

01 ①

02 ①

03 ②

04 ⑤

05 ④

06 ②

01 품사의 특성 - 용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돕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도와’가 된다. 이로 보아 ‘돕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말음인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반모음 ‘w’로 변하는 ‘ㄷ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그리고 ‘흐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와 결합하면 ‘흘러서’가 된다. 이로 보아 ‘흐르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끝음절 ‘르’가 ‘ㄹㄹ’로 변하는 ‘ㄹ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ㄷ 불규칙 용언’이나 ‘ㄹ 불규칙 용언’은 모두 활용할 때 어간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용언이다. 한편 ‘벗다’나 ‘잡다’는 어간에 자음이나 모음 중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더라도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둘 다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제시어]를 통해 ‘이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와 결합할 때 ‘이르러서’가 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이르다’는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또한 ‘일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일하여’가 된다. 이로 보아 ‘일하다’는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여 불규칙 용언’이다.

02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논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그러나 ‘보슬비’는 비자립적 어근 ‘보슬’과 명사 ‘비’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짧은이’는 용언의 관형사형 ‘짧은’과 명사 ‘이’로, ‘건널목’은 용언의 관형사형 ‘건널’과 명사 ‘목’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③ ‘들어간다’는 용언의 연결형 ‘들어’와 용언 어간 ‘가-’로,

‘찾아보다’는 용언의 연결형 ‘찾아’와 용언 어간 ‘보-’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④ ‘꺾쇠’는 용언 어간 ‘꺾-’과 명사 ‘쇠’로, ‘덮밥’은 용언 어간 ‘덮-’과 명사 ‘밥’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⑤ ‘뽕주리다’는 용언 어간 ‘뽕-’과 용언 어간 ‘주리-’로, ‘뛰놀다’는 용언 어간 ‘뛰-’와 용언 어간 ‘놀-’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03 품사의 특성 - 용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되묻다’에서 ‘되-’는 접두사로, ‘되묻다’가 두 개의 동사를 어미의 결합 없이 연결하여 만들어진 합성 용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들고 가다’는 ‘들다’와 ‘가다’라는 동사를 어미 ‘-고’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③ ‘걸어가다’는 ‘걷다’와 ‘가다’라는 동사를 어미 ‘-어’로 연결한 말로, 합성 용언이다.

④ ‘출지 않다’는 ‘출다’와 ‘않다’라는 형용사를 어미 ‘-지’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⑤ ‘가 보다’는 ‘가다’와 ‘보다’라는 동사를 어미 ‘-아’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04 품사의 특성 - 관계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기우로밖에’에서 ‘로밖에’는 부사격 조사 ‘로’와 보조사 ‘밖에’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하므로, 두 개의 부사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것만이’에서 ‘만이’는 보조사 ‘만’과 보격 조사 ‘이’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② ‘오빠에게도’에서 ‘에게도’는 부사격 조사 ‘에게’와 보조사 ‘도’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③ ‘뽕만으로는’에서 ‘만으로는’은 보조사 ‘만’, 부사격 조사 ‘으로’, 보조사 ‘는’이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④ ‘해외로의’에서 ‘로의’는 부사격 조사 ‘로’와 관형격 조사 ‘의’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05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짓밟히고’는 ‘짓-+밟-+-히-+-고’로 분석되고, ‘휘날리는’은 ‘휘-+날-+-리-+-는’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짓-’, ‘휘-’는 접두사, ‘-히-’, ‘-리-’는 접미사이다. 두 단어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짓밟히고’, ‘휘날리는’은 동사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휘날리는’에는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짓밟히고’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짓-’, ‘-히-’, ‘휘-’, ‘-리-’는 접사이지만,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접사가 아니다.
- ⑤ ‘짓밟히고’, ‘휘날리는’은 동사로, 다른 단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06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실천토록’이 옳은 표기이다. ‘실천하도록’의 ‘하’ 앞에는 받침의 소리는 [ㄴ]으로 [ㄱ], [ㄷ], [ㅂ]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간의 끝음절 ‘하’에서 ‘ㅎ’만 남고, 그 ‘ㅎ’과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뀐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생각컨대’는 잘못된 표기이고, ‘생각건대’가 옳은 표기이다. ‘생각하건대’에서 ‘하’ 앞에는 받침의 소리가 [ㄱ]이기 때문에 어간의 끝음절 ‘하’가 통째로 줄어야 한다.
- ③ ‘어떠타’는 잘못된 표기이고, ‘어떻다’가 옳은 표기이다.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쓰이기 때문에 ‘ㅎ’을 받침으로 적은 ‘어떻다’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다’는 형용사이다.
- ④ ‘아뿡든’은 잘못된 표기이고, ‘아무튼’이 옳은 표기이다. ‘아무튼’은 어원을 따져 볼 때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아무튼’은 부사이다. 부사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뿡든’이 아닌 ‘아무튼’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⑤ ‘그렇든’이 옳은 표기이다. 그러나 ‘그렇든’이 부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용언의 활용형 ‘그렇든’이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튼’으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표기해야 한다.

언어 04

단어 ②

본문 64~67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①

06 ②

01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푯고추볶음’은 ‘푯-+고추+볶-+-음’의 구조를 가진 말로, ‘접사+어근+어근+접사’로 분석되는 단어에 해당한다. 층위적 분석에 따르면, 이 단어는 ‘푯고추’와 ‘볶음’으로 분석되고, ‘푯고추’는 다시 접사 ‘푯-’과 어근 ‘고추’로 분석된다. 한편 ‘볶음’은 어근 ‘볶-’과 접사 ‘-음’으로 다시 분석된다. 즉 ‘푯고추볶음’은 [[푯-+고추]+[볶-+-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들이옷’은 ‘어근+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다.
- ② ‘미달이문’은 ‘어근+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다.
- ③ ‘살얼음판’은 ‘접사+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다.
- ④ ‘닭고기뿔밥’은 ‘어근+어근+어근+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다.

02 품사의 분류 기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웬 까닭인지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에서 ‘웬’은 ‘어찌 된.’이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고, ‘다른’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 세계의 학자가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에서 ‘전’은 ‘모든 또는 전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사이고, ‘온갖’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라는 뜻을 가진 말로 역시 관형사이다.
- ② ‘그 사람이 나가더니 두 사람이 들어왔다.’에서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관형사이고, ‘두’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말.’로 역시 관형사이다.

④ ‘그는 빗바랜 모자를 버리고 새 모자를 썼다.’에서 ‘빗바랜’은 ‘납거나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진 ‘빗바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고, ‘새’는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이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다.

⑤ ‘당시 온 식구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에서 ‘온’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고, ‘같은’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뜻을 가진 ‘같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03 형태소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맨손’은 ‘맨-+손’, ‘살다’는 ‘살-+다’, ‘여닫이’는 ‘열-+닫-+이’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맨-’, ‘-다’, ‘-이’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포함된 단어는 ‘맨손’, ‘살다’, ‘여닫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집밥’은 ‘집+밥’으로 분석되는데, ‘집’과 ‘밥’ 모두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한편 ‘접칼’은 ‘접-+칼’로 분석되는데, ‘접-’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 ‘칼’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04 품사의 특성 - 관계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ㄱ, ㄴ, ㄷ, ㄹ은 모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ㄷ, ㄹ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고, ㄴ은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ㄷ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하지만 ㄴ은 보조사이지만 ‘차’가 ‘커피’와 대조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ㄹ. ‘빵과 쿠키가 있는데’나 ‘개가 늑대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에서 ‘가’는 모두 주격 조사로, 문장에서 앞말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인 말이다. ㄱ가 문장에서 ‘개’가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인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ㄴ가 문장에서 ‘쿠키’가 보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품사의 분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나는 옷에 흙이 묻어 씻었다.’와 ‘그것은 비밀로 묻어 두었다.’에 쓰인 ‘묻다’는 모두 동사이다. 품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형의 진짜 속셈이 뭔지 모르겠다.’의 ‘진짜’는 명사이고, ‘이 책은 진짜 지루하다.’의 ‘진짜’는 부사이다.

③ ‘그는 네게 좋은 친구이다.’의 ‘그’는 대명사이고, ‘그 이야기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의 ‘그’는 관형사이다.

④ ‘여덟에 둘을 더하면 열이 된다.’의 ‘열’은 수사이고, ‘모인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의 ‘열’은 관형사이다.

⑤ ‘내일은 출근하는 날입니다.’의 ‘내일’은 명사이고, ‘우리는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의 ‘내일’은 부사이다.

06 합성어 종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어느새’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이 의미상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산들바람’은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그리고 ‘눈비’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이 의미상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달님[달림]’은 순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고, ‘국물[궁물]’은 역행 동화, 부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 ② ‘달님[달림]’은 순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고, ‘잠무[잠무]’는 역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 ③ ‘국물[궁물]’은 역행 동화, 부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고, ‘칼날[칼랄]’은 순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 ⑤ ‘진리[질리]’는 역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고, ‘칼날[칼랄]’은 순행 동화,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있다[읷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특히 음절의 끝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ㅌ’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음절의 끝에서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담다[담따]’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음절의 끝에서 교체나 탈락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없다[업따]’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음절의 끝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ㅌ’ 탈락만 일어난다.
- ③ ‘웁다[웁따]’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음절의 끝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ㄹ’ 탈락만 일어난다.
- ④ ‘갈다[간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음절의 끝에서 ‘ㅌ’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만 일어난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 ‘국민[궁민]’은 비음화에 의해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된다. ‘ㄱ’, ‘ㅇ’은 연구개음으로 음운 변동 후 조음 위치가 바뀌지 않지만, 조음 방법은 바뀔 수 있다.
- ㉡ ‘굳이[구지]’는 구개음화에 의해 파열음 ‘ㄷ’이 파찰음 ‘ㅌ’으로 교체된다. ‘ㄷ’은 치조음, ‘ㅌ’은 경구개음으로, 음운 변동 후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은 물론 조음 방법도 바뀔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논밭[논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파열음 ‘ㅌ’이 파열음 ‘ㄷ’으로 교체된다. ‘ㅌ’, ‘ㄷ’은 치조음으로 음운 변동 후 조음 위치가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실내[실래]’는 유음화에 의해 비음 ‘ㄴ’이 유음 ‘ㄹ’로 교체된다. ‘ㄴ’, ‘ㄹ’은 치조음으로 음운 변동 후 조음 위치가 바뀌지 않지만, 조음 방법은 바뀔 수 있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국밥[국뺨]’은 ‘ㄱ’ 뒤에서 ‘ㅃ’이 ‘ㅍ’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담자[담짜]’는 비음인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담-’ 뒤에서 어미의 ‘ㅌ’이 ‘ㅍ’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법만[법뺨]’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담자[담짜]’는 ㉡의 예가 맞다.
- ③ ‘국밥[국뺨]’은 ㉠의 예가 맞지만, ‘안방[안뺨]’은 ‘안’이 용언 어간이 아니므로 ㉡의 예가 아니다.
- ④ ‘만형[마텽]’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안방[안뺨]’은 ‘안’이 용언 어간이 아니므로 ㉡의 예가 아니다.
- ⑤ ‘만형[마텽]’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 예가 될 수 없고, ‘숨고[숨꼬]’는 비음인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숨-’ 뒤에서 어미의 ‘ㄱ’이 ‘ㅋ’으로 바뀌었으므로 ㉡의 예가 맞다.

언어	03	단어 ①	본문 57~61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5 ③

01 형태소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크-’, ‘기쁘-’, ‘주-’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지만, ‘-었-’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문장은 ‘그’, ‘새’, ‘는’, ‘우리’, ‘에게’, ‘매우’, ‘크-’, ‘-ㄴ’, ‘기쁘-’, ‘-ㄴ’, ‘을’, ‘주-’, ‘-었-’, ‘-다’라는 1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② ‘그’, ‘새’, ‘우리’, ‘매우’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㉞)에 해당한다.
- ④ ‘그’, ‘새’, ‘우리’, ‘매우’, ‘크-’, ‘기쁘-’, ‘주-’는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㉞)에 해당한다.
- ⑤ ‘는’, ‘에게’, ‘을’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㉞)이면서 의미의 성격에 따라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㉞)이다. 또한 이 형태소들은 조사로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의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처리된다.

02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살얼음’은 어근 ‘얼-’과 접미사 ‘-음’을 결합한 파생어 ‘얼음’에 접두사 ‘살-’을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이다. ‘살-’은 ‘온전하지 못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재주꾼’은 어근 ‘재주’와 접미사 ‘-꾼’을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이다.
- ③ ‘도움말’은 어근 ‘돕-’과 접미사 ‘-음’을 결합한 파생 명사 ‘도움’에 어근 ‘말’을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이다.
- ④ ‘민물고기’는 접두사 ‘민-’과 어근 ‘물’을 결합한 파생어 ‘민물’에 어근 ‘고기’를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이다.
- ⑤ ‘접이문(門)’은 어근 ‘접-’에 접미사 ‘-이’를 결합한 파생어 ‘접이’에 한자어 어근 ‘문’을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이다.

03 품사의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첫 번째 문장의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밖에’는 ‘무엇에 의하여 둘러싸이지 않은 공간. 또는 그쪽.’을 나타내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말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별개의 단어로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첫 번째 문장의 ‘같이’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품사 통용이 일어나고 있다.
- ② 첫 번째 문장의 ‘만세’는 ‘바람이나 경축, 환호의 느낌으로 외치는 말.’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만세’는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말에 따라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로, 품사 통용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첫 번째 문장의 ‘크지’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의 동사를 활용한 형태이다. 두 번째 문장의 ‘크지’는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를 활용한 형태로, 품사 통용이 일어나고 있다.
- ⑤ 첫 번째 문장의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의존 명사와 조사로 품사 통용이 일어나고 있다.

04 본용언과 보조 용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1)-ㄱ에서 ‘버렸다’는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으나 (1)-ㄷ의 ‘버리자’는 본용언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ㄱ은 본용언인 ‘떡다’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어’와 ‘버렸다’라는 보조 용언이 이어진 것이다. 본용언인 ‘떡다’의 어간에 (1)-ㄴ에서와 같이 연결 어미 ‘-어서’를 붙인 후 보조 용언 ‘버렸다’가 이어지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③ (2)-ㄱ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 ‘우리는’의 서술어는 ‘바라고 있다’라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다. 여기에서 본용언으로 쓰인 ‘바라고’를 생략하고 (2)-ㄴ과 같이 ‘있다’만으로 문장을 만들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④ (3)-ㄱ에서 ‘보았다’는 보조 용언으로 쓰였고, (3)-ㄴ에서 ‘보고’는 본용언으로 쓰였다.
- ⑤ (3)-ㄴ에서 ‘있다’는 문맥상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3)-ㄷ에서 ‘있다’는 문맥상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05 용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치르다’는 ‘치르고’, ‘치르니’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면서 어간 뒤에 어미 ‘-어’가 이어질 때 ‘치러’와 같이 어간의 끝 ‘ㄷ’가 탈락하는 ‘ㄷ’ 탈락이 일어난다. 따라서 ‘치렀습니다’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르다’는 ‘일러’, ‘일러라’와 같이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는 ‘르’가 ‘르르’ 형태로 변하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일러’가 된다.
- ②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니’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면서 어간 뒤에 일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는 ‘들러’와 같이 어간 끝 ‘ㄷ’가 탈락하는 ‘ㄷ’ 탈락이 일어나므로 ‘들러서’가 된다.
- ④ ‘가물다’는 ‘가물고’, ‘가물어’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면서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등 일부 어미가 이어질 때는 ‘가문’과 같이 ‘ㄹ’ 탈락이 일어나므로 ‘가무니’가 된다.
- ⑤ ‘누르다’는 어간 뒤에 어미 ‘-어’가 이어질 때는 ‘-어’가 ‘-러’로 변하는 ‘러’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누르러’가 된다.

언어	04	단어 2	본문 62~64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①
05	④		

01 단어의 분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강물(강+물)’, ‘깨물다(깨-+물-+다)’는 합성어, ‘뜻사랑(뜻-+사랑)’, ‘밀치다(밀-+치-+다)’, ‘웃음(웃-+음)’, ‘지우개(지우-+개)’는 파생어이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해당하는데, 특히 ‘웃음(웃-+음)’, ‘지우개(지우-+개)’는 모두 파생어가 될 때 동사에서 명사로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형태소가 결합된 단어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①에는 ‘밀치다, 뜻사랑’, ②에는 ‘웃음, 지우개’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 모두 옳지 않다.

②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③ ㉤은 ‘뜻사랑’만 옳고, ‘지우개’는 옳지 않다. ㉥은 ‘웃음’만 옳고, ‘밀치다’는 옳지 않다.

⑤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02 품사의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 ‘아무’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는 ㉡의 ‘누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누구’는 주어진 맥락을 고려할 때, 가리키는 대상을 굳이 밝혀서 말하지 않을 때 쓰는 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 ② ㉢의 ‘아무’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 대명사로, 보조사 ‘도’가 결합되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하고 있다.
- ④ ㉣의 ‘누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의 ‘아무’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 대명사이다.
- ⑤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은 모두 물건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에 해당한다.

03 품사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적절한 표현이다. 이를 ‘에서’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표현이 된다.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기도 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이를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로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의 ‘로’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에’ 역시 앞말이 원인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바꾸어 써도 무관하다.
- ③ ㉣의 ‘에게서’는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로부터’ 역시 같은 기능을 하는 격 조사이므로 바꾸어 써도 무관하다.



④ ㄹ의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등의 기능을 하는 격 조사이다. ㄹ에는 ‘위에서 아래’라는 움직임의 방향이 나타나 있으므로 ‘에게’를 ‘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4 품사의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다.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는 ‘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그’는 삼인칭 대명사로,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아닌 제삼자인 ‘오빠’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 ③ ㉢의 ‘그’는 지시 대명사로, 앞에서 이미 언급된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 ④ ㉣의 ‘저’는 삼인칭 대명사로,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자기’보다 낮잡는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며, 앞에서 이미 언급된 ‘시동생’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 ⑤ ㉤의 ‘저’는 일인칭 대명사로,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말하는 이가 ‘총장’을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05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어야 하므로 ‘광희문’에서 ‘희’는 ‘hi’가 아니라 ‘hui’로 적어야 옳다. 즉 ‘광희문’은 ‘Gwanghuimun’이 옳은 표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월곶[월곶]’을 표기하면 ‘Wolgot’가 적절하다.
- ② ‘ㄹㄹ’은 ‘ll’로 적는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울릉[울릉]’을 표기하면 ‘Ulleung’가 적절하다.
- ③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영동[영동]’을

표기하면 ‘Yeongdong’가 적절하다.

⑤ ‘ㄹㄹ’은 ‘ll’로 적는다는 설명을 고려하여 ‘대관령[대:괘령]’을 표기하면 ‘Daegwallyeong’가 적절하다.

언어

05

문장 ①

본문 | 65~67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1 문장 성분별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밟다’는 ‘발을 들었다 놓으면서 어떤 대상 위에 대고 누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서술어로, ‘발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등곳길에’와 ‘지하철역에서’는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수의적 부사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드리다’는 문장에서 ‘주다’의 높임말로 사용될 때 ‘~에/에게 ~을/를 드리다’의 형식으로 쓰인다. 따라서 ‘할머니께’와 같이 대상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 ② ‘비슷하다’는 문장에서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따위가 똑같은지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철수와’와 같이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 ③ ‘참가하다’는 문장에서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회의에’와 같이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 ⑤ ‘삼다’는 문장에서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계기로’와 같이 필수적 부사어가 요구된다.

02 문장의 짜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미 코끼리는’이다. 반면에 안긴문장인 ‘덩치가 매우 크다.’의 주어는 ‘덩치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나는 빵을 먹었다.’와 ‘(나는) 우유를 마셨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 ② ‘쏘-’의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고 뒤의 ‘t’와 함께 이중 모음 ‘나’가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어’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ㄷ’이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기다리-’에서 ‘리’의 ‘i’가 반모음 ‘j’로 교체되고 뒤의 ‘ㄷ’와 함께 이중 모음 ‘ㄷ’이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언어 03 본문 224~227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③

01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깨끗-’, ‘-하-’, ‘-게’는 모두 형태소이다. 또한 어근 ‘깨끗-’에 접미사 ‘-하-’가 결합된 ‘깨끗하다’는 하나의 단어이다. ‘깨끗하-’는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활용형들 역시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깨끗하-’에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 ‘깨끗하게’ 역시 하나의 단어이다.

02 용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아파서’는 어간 ‘아프-’에 어말 어미인 연결 어미 ‘-아서’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 즉 선어말 어미가 ‘아파서’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샀다’는 어간 ‘사-’에 선어말 어미 ‘-았-’과 어말 어미인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샀다’에 모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되어야’는 어간 ‘되-’에 어말 어미인 종결 어미 ‘-어라’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문장을 끝내는 어미, 즉 종결 어미가 ‘되어야’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하고’는 어간 ‘하-’에 어말 어미인 연결 어미 ‘-고’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즉 연결 어미가 ‘하고’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피는’은 어간 ‘피-’에 전성 어미인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용언을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 즉 관형사형 어미가 ‘피는’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3 합성어의 형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합성 부사인 ‘잘못’은 부사 ‘잘’과 ‘못’이 결합한 단어이고, ‘또다시’ 역시 부사 ‘또’와 ‘다시’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따라서 ‘잘못’과 ‘또다시’는 모두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합성 부사 ‘한바탕’은 관형사 ‘한’과 명사 ‘바탕’이 결합한 단어이고 ‘이른바’는 동사의 관형사형 ‘이른’에 명사 ‘바’가 결합된 구성이므로 ‘한바탕’과 ‘이른바’는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이것저것’은 대명사 ‘이것’과 ‘저것’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또한 ‘골고루’는 부사 ‘고루’가 중복하여 결합한 ‘고루고루’의 준말이므로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어느새’는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 ③ 합성 부사 ‘죄다’는 부사 ‘죄’와 ‘다’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은 부사 ‘오래’와 명사 ‘동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 ④ ‘오늘날’은 명사 혹은 부사 ‘오늘’과 명사 ‘날’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이것저것’은 대명사끼리 결합한 합성 명사 유형이므로 ‘오늘날’과 ‘이것저것’은 모두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이른바’와 ‘어느새’는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 ⑤ ‘오늘날’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오랫동안’은 부사 ‘오래’와 명사 ‘동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04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의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는 공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고, ㉡의 ‘틈’은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라는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 ㉡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는 예문의 짝으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의 ‘뒤’와 ㉡의 ‘뒤’ 모두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이나 곳’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므로 ㉠, ㉡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는 예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의 ‘위’는 ‘어떤 기준보다 더 높은 쪽’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의 ‘위’는 ‘신분, 지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더 높거나 나은 쪽’을 나타내므로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 ㉡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

간적 개념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는 예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사이'는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나 공간'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의 '사이'는 '서로 맺은 관계'를 의미하므로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 ㉡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는 예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 '가운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 끝에서 거의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의 '가운데'는 '여럿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의 안'을 의미하므로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 ㉣은 한 단어가 공간적 개념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는 예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어휘의 변천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계획을 대폭 고침.'에서 '고침'은 '변경(變更)과 대응될 수 있다. '쇄신(刷新)'은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이라는 뜻으로 '분위기 쇄신', '인사 쇄신' 등과 같이 현재 상태나 상황을 바꾼다는 의미로 주로 쓰여 '계획'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래된 부역을 신식으로 고침.'에서 '고침'은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침.'이라는 의미를 갖는 '개량(改良)과 잘 대응된다.

② '낡은 옷을 새 옷처럼 고침.'에서 '고침'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이라는 의미를 갖는 '수선(修繕)과 잘 대응된다.

④ '이 병원은 병을 잘 고침.'에서 '고침'은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이라는 의미를 갖는 '치료(治療)와 잘 대응된다.

⑤ '잘못된 버릇을 고침.'에서 '고침'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교정(矯正)과 잘 대응된다.

언어 04

본문 228~232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1 품사의 특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언제였더라'는 '언제'에 서술격 조사 '이-'가 결합한 후에 선어말 어미 '-었-', '-더-'와 종결 어미 '-라'가 결합한 형태이다. 여기서 ㉠ '언제'는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명사가 아니다. ㉡ '언제'는 '만남시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그'는 '마음'을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이고, ㉣ '그'는 격 조사와 결합한 대명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 '뿐'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격 조사와 결합하는 의존 명사이고, ㉡ '뿐'은 보조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 '만'은 보조사이고, ㉣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횃수를 끝으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 '다섯'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이고, ㉣ '다섯'은 명사를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2 용언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없어라'는 '가없-'에 감탄형 어미 '-어라'가 결합한 형태로 감탄형 어미 '-아라/-어라'는 형용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겉맞다'에 결합할 수 없으므로 '겉맞은'은 형용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와 결합하므로 '길다'에 '-는'이 결합된 '기는'은 동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은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으므로 '-ㄴ-'과 결합할 수 없는 '크다'는 형용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의도를 나타내는 '-고자'는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새로워지고자'는 동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03 관계언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산에는', '내년에도'에서 조사 '에'는 각각 '는'과 '도'와 결합하고 있는데, '는', '도'는 보조사이므로 '에'가 격 조사와 결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당국에서'는 주어이므로 이때의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이고 있고, ㉡ '운동장에서'는 부사어이므로 이때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 ㉢ '그가'는 주어이므로 이때의 '가'는 주격 조사이고 '책임자가'는 보어이므로 이때의 '가'는 보격 조사이다. ㉣ '물이'는 주어이므로 이때의 '이'는 주격 조사이고 '얼음이'는 보어이므로 이때의 '이'는 보격 조사이다.

③ ㉠ '금이다'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명사 '금'과 결합하고 있고, ㉡ '제법이다'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부사 '제법'과 결합하고 있다.



㉔ ㉔ ‘늑대와’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고, ㉕ ‘개와’의 ‘와’는 접속 조사이다.

04 단어의 의미 관계

답 ㉔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 ‘예심을 거친 동생’과 ‘중학교를 거친 학생’에서 ‘거친’은 모두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동일한 단어이므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가는 빗줄기’에서 ‘가는’은 ‘가늘-’에 ‘-니’이 결합된 형태이고, ‘발음 가는 동생’에서 ‘가는’은 ‘갈-’에 ‘-는’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단어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㉓ ‘친구 집에서 며칠 묵고[묵꼬]’에서 ‘묵고[묵꼬]’는 ‘묵-’에 ‘-고’가 결합된 형태이고, ‘염소를 묶고[묶꼬]’에서 ‘묶고[묶꼬]’는 ‘묶-’에 ‘-고’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단어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㉕ ‘회복이 느린[느린]’에서 ‘느린[느린]’은 ‘느리-’에 ‘-니’이 결합된 형태이고, ‘길이를 늘인[늘린]’에서 ‘늘인[늘린]’은 ‘늘이-’에 ‘-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단어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㉗ ‘꼭 닫혀서[다쳐서]’에서 ‘닫혀서[다쳐서]’는 ‘닫히-’에 ‘-어서’가 결합된 형태이고, ‘허리를 다쳐서[다쳐서]’에서 ‘다쳐서[다쳐서]’는 ‘다치-’에 ‘-어서’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단어로 활용형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05 띄어쓰기에 관한 조항-제47항

답 ㉓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㉑ ‘(배가 고프다) 못해’에서 ‘못해’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㉔ ‘(맛이 예전보다) 못한’에서 ‘못하다’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㉒ ‘(아무리) 못해도’에서 ‘못해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를 뜻하는 형용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못 해도’로 띄어 쓴 것은 잘못이다.

㉕ ‘(잊지도) 못 하니’는 ‘-지 못하다’ 구성으로 여기서 ‘못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뜻하는 보조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못 하다’로 띄어 쓴 것은 잘못이다.



01 ㉔

02 ㉔

03 ㉑

04 ㉓

05 ㉓

01 문장 성분

답 ㉔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 ‘강조해야 한다’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주어 ‘내가 ... 점은’과 호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 예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여간’은 일반적으로 부정어 ‘안, 못’이나 ‘않다, 못하다’ 등의 말과 호응하는 말이므로, ‘여간 어려워져’를 ‘여간 어렵지 않아서’와 같이 써야 문법적이게 된다.

㉓ ‘지원서 서식’은 서술어 ‘내려받다’의 목적어인데, 문장 어디에 있던 간에 역시 목적어로서 ‘내려받으세요’와 잘 호응한다.

㉕ ‘모름지기’는 일반적으로 ‘-어야 한다’와 같은 의무나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한다. 그러므로 예문의 서술어 ‘알아야 한다’와 잘 호응한다.

㉗ 목적어 ‘환경을’은 ‘변화시키기도 하고’와는 잘 호응하지만 ‘적응하기도 하면서’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문법적이다. ‘적응하기도 하면서’ 앞에 부사어 ‘환경에’를 써야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게 된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부사어

답 ㉕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㉕ 부사어 ‘아주’는 관형어(관형사) ‘새’를 꾸미고 부사어 ‘참’은 부사어 ‘유용하게’를 꾸민다. ‘참’이 ‘쓰고 있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참 쓰고 있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명사 ‘통’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은 ‘통에’는 부사어로 쓰인 것이고, ‘가득’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㉔ ‘답다’는 ‘누가 어디에 무엇을 답다’와 같은 문장을 구성해야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고, ㉑에서 ‘어디에’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통에’가 쓰였으므로 ‘통에’는 필수 성분이다. 그러나 ‘가득’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를 채워 주는 말이 아니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㉕ ‘다행히’는 ‘나는 돈 없이도 여행을 잘 다녀다’가 언급하는 사건이 다행스러웠다고 언급하는 부사어로서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잘’은 ‘다녔다’만을 꾸며 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음운의 탈락은 ㉠, ㉡에서만 나타나고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첨가는 ㉠, ㉢, ㉡ 중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에서는 ‘ㄴ’이 ‘ㄹ’로 교체되는 변동이, ㉡에서는 ‘ㅍ’이 ‘ㅂ’으로 교체되는 변동과 평음(예사소리)이 경음(된소리)으로 교체되는 변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에서는 교체 대신 축약이 나타난다.
- ⑤ 축약은 ㉢에서만 나타난다.

문법 03 본문 209~213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②

01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에’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적 의미를 갖는 형식 형태소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에는 ‘아이’, ‘가’, ‘마당’, ‘에’, ‘앉-’, ‘-아’, ‘있-’, ‘-다’ 등 모두 8개의 형태소가 들어간다.
- ② ‘아이’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어휘적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이다.
- ③ ‘앉-’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휘적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이다.
- ⑤ ‘-다’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적 의미를 갖는 형식 형태소이다.

02 합성 명사의 유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굳은살’은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산나물’은 ‘명사 + 명사’ 구성의 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접칼’은 ‘용언의 어간 + 명사’, ‘산들바람’은 ‘부사 + 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검버섯’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이고 ‘산나물’은 ‘명사 + 명사’ 구성의 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 ② ‘산들바람’은 ‘부사 + 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 ④ ‘검버섯’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이고 ‘굳은살’, ‘늪은이’는 모두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구성의 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 ⑤ ‘새해’는 ‘관형사 + 명사’ 구성의 통사적 합성 명사이다.

03 합성어와 파생어 구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비웃음’의 직접 구성 요소를 ‘비웃-’과 접미사 ‘-음’으로 분석하여 ‘비웃음’을 파생어로 본 것은 올바른 분석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놀이터’의 직접 구성 요소를 ‘놀이’와 ‘터’로 분석한 것은 올바른 분석이나 ‘놀이터’의 직접 구성 요소에는 접사가 없으므로 ‘놀이터’는 합성어이다.
- ③ ‘눈웃음’은 ‘눈’과 ‘웃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런데 직접 구성 요소를 ‘눈웃-’과 접미사 ‘-음’으로 잘못 분석하면 파생어로 오인할 수 있다.
- ④ ‘코웃음’은 ‘코’와 ‘웃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런데 직접 구성 요소를 ‘코웃-’과 접미사 ‘-음’으로 잘못 분석하면 파생어로 오인할 수 있다.
- ⑤ ‘야채볶음’은 ‘야채’와 ‘볶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런데 직접 구성 요소를 ‘야채볶-’과 접미사 ‘-음’으로 잘못 분석하면 파생어로 오인할 수 있다.

04 파생 명사와 명사형의 구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은 파생 명사이므로 <보기 2>에서 명사를 찾아야 한다. ㉡: 저와 함께 (멋진) 춤을 추시겠어요?에서 ‘춤’은 ‘멋진’과 같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사이다. ㉣: 아무리 (몰려오는) 잠을 쫓으려 해도 눈이 감겼다.에서 ‘잠’은 ‘몰려오는’과 같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 ‘장군은 호탕하게 크게 웃음으로써 위기를 넘겼다.’에서와 같이 ‘웃음’은 ‘호탕하게’ 혹은 ‘크게’와 같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므로 동사이다.
- ㉤: ‘동생이 일기에 “그림을 그림.”이라고 썼다.’에서 ‘그림을 (잘) 그림.’과 같이 ‘그림.’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므로 동사이다.

05 의존 명사의 쓰임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집에 갈 수 있다.’에서 의존 명사 ‘수’는 관형사절 ‘집에 갈’의 수식을 받고 있고 ‘집에 갈 수가 있다.’와 같이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집에 갈 수’는 부사어가 아닌 주어로 쓰이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의존 명사 ‘뻔’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 ③ 의존 명사 ‘것’은 ‘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졌다.’와 같이 <보기>의 ‘바’ 대신 ‘것’을 넣어도 모든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④ 의존 명사 ‘때문’이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하나, ‘때문을’이 쓰인 문장은 우리말에 없으므로 ‘때문’은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 ‘때문’은 ‘그것은 너 때문이다.’에서와 같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 ⑤ 의존 명사 ‘줄’이 주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주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하나, ‘줄이’가 쓰인 문장은 우리말에 없으므로 ‘줄’은 우리말에서 주어로 쓰일 수 없다. ‘줄’은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에서와 같이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문법 04**

본문 214~218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①
05 ②

01 형태소의 개념과 이형태 파악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었-’은 앞 음절의 모음이 ‘아, 오’일 경우에는 ‘-았-’이, 그 외의 모음인 경우에는 ‘-었-’이 쓰인다. 그런데 ‘떡였다’의 ‘-었-’은 사동 접미사 ‘-이-’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들었다’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모습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목적격 조사 ‘을’과 ‘를’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을’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를’이 쓰인다. 따라서 ‘책을’과 ‘편지를’에서 ‘을’과 ‘를’은 모습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연결 어미 ‘-아’와 ‘-어’는 앞 음절의 모음이 ‘아, 오’인 경우에는 ‘-아’가, 그 외의 모음인 경우에는 ‘-어’가 쓰인다. 따라서 ‘막아’와 ‘집어’에서 ‘-아’와 ‘-어’는 모습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접속 조사 ‘와’와 ‘과’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와’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과’가 쓰인다. 따라서 ‘사과와’와 ‘책과’에서 ‘와’와 ‘과’는 모습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보조사 ‘는’과 ‘은’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는’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은’이 쓰인다. 따라서 ‘오빠는’과 ‘형은’에서 ‘는’과 ‘은’은 모습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02 용언의 활용 양상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 ‘무겁-’에 ‘-어’가 결합하면 ‘무거워’가 되는데, 이는 어간 끝 받침 ‘ㅂ’이 ‘ㅍ’로 바뀐 것이므로 어간의 모양이 바뀐 예이다.
- ㉡ ‘들-’에 ‘-어’가 결합하면 ‘들어’가 되는데, 이는 어간 끝 받침 ‘ㄷ’이 ‘ㄹ’로 바뀐 것이므로 어간의 모양이 바뀐 예이다.
- ㉢ ‘짓-’에 ‘-어’가 결합하면 ‘지어’가 되는데, 이는 어간의 ‘ㅅ’이 탈락한 것이므로 어간의 모양이 바뀐 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 ‘이르-’에 ‘-어’가 결합하면 ‘이르러’가 되는데, 이는 어미 ‘-어’가 ‘-러’로 나타난 것이므로 어미의 모양이 바뀐 예이다.
- ㉤ ‘파랑-’에 ‘-아’가 결합하면 ‘파래’가 되는데, 이는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예외적인 형태인 ‘-애’로 나타난 것이므로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모두 바뀐 예이다.

03 의존 명사와 조사의 구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대로02’는 보조사이므로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지 못하고 특별한 의미만을 나타낸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대로01’은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 ② ‘대로01’은 ‘들은 대로’, ‘집에 도착하는 대로’ 등과 같이 관형사절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 ④ ‘대로02’는 보조사로, ‘법대로만’과 같이 다른 보조사가 뒤에 올 수 있다.
- ⑤ ‘대로01’과 ‘대로02’는 각각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다의어이다.



04 조사의 의미 이해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났다.’에서 ‘로’는 ‘원인’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를 대표로 뽑았다.’에서 ‘로’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각각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의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다.’에서 ‘로’는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고 있고, ㉡의 ‘그들은 갈등을 대화로 해결했다.’에서 ‘로’는 ‘수단’을 나타낸다.

㉣ ㉠의 ‘로’는 ‘원인’을 나타내고, ㉡의 ‘로’는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낸다.

㉤ ㉠의 ‘로’는 ‘수단’을 나타내고, ㉡의 ‘로’는 ‘자격’을 나타낸다.

㉥ ㉠의 ‘로’는 ‘원인’을 나타내고, ㉡의 ‘로’는 ‘수단’을 나타낸다.

05 반의 관계의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판매-구매’는 한 개념만은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관계이므로 상호 의존적으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관계인 (다)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출석-결석’은 중간 개념이 없으므로 상호 배타적으로 양분하는 관계인 (가)에 해당한다.

③ ‘넓다-좁다’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중간 영역이 존재하므로 상대적 정도 개념의 양 극단을 나타내는 관계인 (나)에 해당한다.

④ ‘오른쪽-왼쪽’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존적이어서 한 개념만은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개념의 관계인 (다)에 해당한다.

⑤ ‘가르치다-배우다’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존적이어서 한 개념만은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개념의 관계인 (다)에 해당한다.

01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부른다’를 꾸며 주는 ‘예쁘게’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므로 서술어의 자릿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에서의 ‘부른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에서 ‘돌다’는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는 뜻으로서, 주어 하나만 필수적인 한 자리 서술어이다.

㉡ ㉡에서 ‘집다’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물건을 잡아서 들다.’라는 뜻으로서, 주어와 목적어가 필수적인 두 자리 서술어이다.

㉢ ㉢에서 ‘어울리다’는 ‘서로 잘 조화되어 자연스럽게 보이다.’라는 뜻으로서, 주어와 부사어가 필수적인 두 자리 서술어이다. ‘어울리다’가 쓰인 문장의 부사어에는 ‘에’, ‘에게’, ‘와/과’ 등의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

㉣ ㉣에서 ‘교환하다’는 ‘서로 주고받고 하다.’라는 뜻으로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필수적인 세 자리 서술어이다. ‘교환하다’가 쓰인 문장의 부사어에는 ‘와/과’ 등의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

02 높임 표현의 쓰임 파악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영호’의 ‘아버지’는 화자인 ‘큰아버지’에게는 동생이 되므로 높임 필요가 없으나, 청자인 ‘조카(영호)’를 의식하여 ‘나가셨나(나가-+ -시-+ -었-+ -니)’에서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손자에게 자기 아버지는 높여야 할 대상인데 청자인 할아버지를 의식하여 ‘잡니다’에서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곧 화자에게는 높여야 할 대상인데 청자를 의식해서 높이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압존(법)’이라고 한다.

② 회사 경비원에게 방문객은 낮선 사람이므로 존중해 높이는 말을 써야 한다. ‘오셨습니까’에 주체 높임의 ‘-시-’와 하십시오체 상대 높임의 ‘-습니까’가 쓰였다. 높임 만한 청자에게 높임 표현을 쓴 예이다.

③ 회사 직원은 상사에게 높임말을 써야 하므로, 주체 높임의 ‘-시-’와 높임의 보조사 ‘요’를 사용하여 ‘가시지요’로 표현하였다. 높임 만한 청자에게 높임 표현을 쓴 예이다.

④ 동생에게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부사어 ‘어머니께’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드리다’가 사용되었다. 청자인 형을 의식해서 높이지 않아도 될 대상을 높인 경우가 아니다.

문법 05 본문 219~221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③



되는 변동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⑤ ‘숲만’을 [숨만]으로 발음하는 데에는 음절 종성의 ‘ㅍ’을 ‘ㅂ’으로 발음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및 비음화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 둘은 모두 교체에 속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05 사잇소리 현상의 특성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오곡밥’에서 ‘오곡’은 ‘밥’의 재료(오곡으로 지은 밥)가 된다. 본문에 나오는 ‘시간, 장소, 용도, 기원’과 무관한데도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오곡밥’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은 ‘밥’ 앞에 오는 말이 ‘오곡’과 같이 ‘ㄱ’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ㄱ’ 뒤에서는 예외 없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오곡밥’은 ㉓에 들어갈 수 없는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봄바람’의 표준 발음은 [봄빠람]이며, ‘봄’과 ‘바람’은 시간(봄에 부는 바람)의 의미 관계를 맺으므로 ㉓에 들어갈 수 있다.
- ③ ‘꿀단지’의 표준 발음은 [꿀단지]이며, ‘꿀’과 ‘단지’는 용도(꿀을 넣는 단지)의 의미 관계를 맺으므로 ㉓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밀가루’의 표준 발음은 [밀가루]이며, ‘밀’과 ‘가루’는 기원(밀에서 나온 가루)의 의미 관계를 맺으므로 ㉓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산돼지’의 표준 발음은 [산돼지]이며, ‘산’과 ‘돼지’는 장소(산에 사는 돼지)의 의미 관계를 맺으므로 ㉓에 들어갈 수 있다.

문법 03

본문 241~245쪽

- 01 ⑤
- 02 ⑤
- 03 ⑤
- 04 ②
- 05 ③

01 단어 구성 요소인 어근과 접사 구별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끈기 있게 철썩 붙다.’는 뜻을 지닌 ‘들붙다’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들붙은’의 ‘들-’은 어근이다. ‘들끓었다’의 ‘들-’은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새까맣게’의 ‘새-’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새사람’의 ‘새’는 관형사 어근이다.
- ② ‘짓누르느’의 ‘짓-’과 ‘짓이겨서’의 ‘짓-’은 ‘마구’, ‘함부로’,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 ③ ‘땀똥’의 ‘땀-’과 ‘땀똥’의 ‘땀-’은 어근이다.
- ④ ‘막살아서야’의 ‘막-’은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막혀서’의 ‘막-’은 어근이다.

02 접두사의 다양한 의미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외삼촌’의 아내를 ‘외숙모’라고 하는데, 이 두 말에는 ‘모계 혈족 관계인’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외(外)-’가 쓰였다. ‘밖’이나 ‘바깥’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가 쓰인 예로는 ‘외배엽’, ‘외분비’, ‘외출혈’ 등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안주 없이 마시는 술’을 이르는 말인 ‘강술’에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강-’이 쓰였다.
- ② ‘마른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 ‘강기침’에는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강-’이 쓰였다.
- ③ 야구에서 타격이 강한 타자를 이르는 말인 ‘강타자’에는 ‘매우 센’ 또는 ‘호된’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강(強)-’이 쓰였다.
- ④ ‘오직 한 갈래’라는 뜻을 지닌 ‘외갈래’에는 ‘혼자인’ 또는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외-’가 쓰였다.

03 용언에서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의 바른 쓰임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놀라워라’에는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쓰였으므로 ‘놀라워라’는 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놀라워져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는 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기뻐하자’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새롭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는 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새로워지자’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③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는 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아름다워지자’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④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는 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예뻐져라’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04 ‘ㅎ’ 규칙 용언과 ‘ㅎ’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 이해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조그맣-’에 ‘-으니’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하고 ‘으’도 탈락하여 ‘조그마니’라고 활용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렇-’에 ‘-으니’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하고 ‘으’도 탈락하여 ‘그러니’라고 활용된다.
- ③ ‘커다랗-’에 ‘-아서’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하고 ‘-아서’가 ‘-에서’로 나타나서 ‘커다래서’라고 활용된다.



- ④ ‘동그랑-’에 ‘-네’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ㅎ’이 탈락하는 활용형인 ‘동그라네’와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인 ‘동그랑네’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한다.
- ⑤ ‘허영-’에 ‘-네’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ㅎ’이 탈락하는 활용형인 ‘허여네’와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인 ‘허영네’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한다.

05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상 대응 관계 이해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옷가지를) 꿰매다’, ‘(웃단을) 박다’, ‘(치맛단을) 시치다’, ‘(버선울) 감치다’에 대응하는 한자어로는 ‘재봉(裁縫)하다’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자어 ‘착용하다’에 대응하는 고유어에는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신을) 신다’, ‘(장갑을) 끼다’ 등이 있다.
- ② 한자어 ‘요리하다’에 대응하는 고유어에는 ‘(고기를) 익히다’, ‘(고구마를) 삶다’, ‘(시금치를) 데치다’, ‘(죽을) 찐다’ 등이 있다.
- ④ 고유어 ‘생각하다’에 대응하는 한자어에는 ‘(사리를) 판단하다’, ‘(과거를) 기억하다’, ‘(대상을) 사고하다’, ‘(결과를) 추측하다’ 등이 있다.
- ⑤ 고유어 ‘다루다’에 대응하는 한자어에는 ‘(사건을) 처리하다’, ‘(기구를) 사용하다’, ‘(기밀을) 취급하다’, ‘(환자를) 상대하다’ 등이 있다.

문법 04 본문 246~249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③

01 격 조사와 보조사의 차이 이해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조사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는 보조사이다. ㄴ의 ‘깨끗하지가’의 ‘가’는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ㄷ의 ‘가라앉지를’의 ‘를’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ㄱ. ‘바다가’의 ‘가’는 주격 조사이다.
- ㄴ. ‘적임자가’의 ‘가’는 보격 조사이다.
- ㄹ. ‘가게를’의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02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차이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비참하게 두고’의 ‘두고’는 ‘가져가거나 데려가지 않고 남기거나 버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본용언으로 쓰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떠먹여 주었다’의 ‘주었다’는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보조 용언이다.
- ② ‘일해 왔다’의 ‘왔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보조 용언이다.
- ③ ‘열어 놓아야’의 ‘놓아야’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보조 용언이다.
- ④ ‘식이 가는데’의 ‘가는데’는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보조 용언이다.

03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접두사의 형태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명예’는 ‘ㄷ’, ‘ㄹ’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아니므로 접두사 ‘불(不)-’을 써서 ‘불명예’로 쓴다. ‘하얗다’는 첫음절의 초성이 ‘ㅎ’이고 중성이 양성 모음 ‘ㅏ’이므로 접두사 ‘새-’를 써서 ‘새하얗다’로 쓴다. ‘말짱다’는 첫음절의 초성이 올림소리이고 중성이 양성 모음 ‘ㅏ’이므로 접두사 ‘셋-’을 써서 ‘셋말짱다’로 쓴다. ‘허영다’는 첫음절의 초성이 ‘ㅎ’이고 중성이 음성 모음 ‘ㅣ’이므로 접두사 ‘시-’를 써서 ‘시허영다’로 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균형’은 ‘ㄷ’, ‘ㄹ’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아니므로 접두사 ‘불(不)-’을 써서 ‘불균형’으로 써야 한다. ‘까맣다’는 첫음절의 초성이 된소리이고 중성이 양성 모음 ‘ㅏ’이므로 접두사 ‘새-’를 써서 ‘새까맣다’로 써야 한다. ‘멀쪼다’는 첫음절의 초성이 올림소리이고 중성이 음성 모음 ‘ㅣ’이므로 접두사 ‘잇-’을 써서 ‘잇멀쪼다’로 써야 한다.
- ② ‘노랗다’는 첫음절의 초성이 올림소리이고 중성이 양성 모음 ‘ㅏ’이므로 접두사 ‘셋-’을 써서 ‘셋노랗다’로 써야 한다.
- ③ ‘빨갳다’는 첫음절의 초성이 된소리이고 중성이 양성 모음 ‘ㅏ’이므로 접두사 ‘새-’를 써서 ‘새빨갳다’로 써야 한다.
- ④ ‘카맣다’는 첫음절의 초성이 거센소리이고 중성이 양성 모음 ‘ㅏ’이므로 접두사 ‘새-’를 써서 ‘새카맣다’로 써야 한다.

04 격 조사의 다양한 의미 이해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너에게’의 ‘에게’는 ‘색연필’이라는 물건의 소속을 나타내므로 ㉠의 의미로 쓰였고, ‘개에게’의 ‘에게’는 ‘무는’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인 ‘개’를 나타내므로 ㉡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철수에게는’의 ‘에게’는 ㉠의 의미로 쓰였고, ‘언니에게는’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 ② ‘친구들에게’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고, ‘삼촌에게는’의 ‘에게’는 ㉠의 의미로 쓰였다.
- ③ ‘우리에게’의 ‘에게’는 ㉠의 의미로 쓰였고, ‘너에게는’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 ⑤ ‘돼지에게는’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고, ‘나에게는’의 ‘에게’는 ㉠의 의미로 쓰였다.

05 동음이의 관계와 다의 관계 이해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다리가 부러진 책상을 고치러 갔다.”의 ‘다리’는 다리⁰¹ 「2」의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의 의미로 쓰였다. ㉢의 의미로 쓰인 ‘오징어 다리’의 ‘다리’와는 다의 관계를 맺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를 맺는 예이다.
- ② “이 안경은 다리 하나가 없다.”의 ‘다리’는 ㉠이 아니라 다리⁰¹ 「4」에 해당하는 예이다. 또한 답지에 제시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를 맺는 예이다.
- ④ “이 물건은 우리에게 오는 데 다리를 여럿 거친 것이다.”의 ‘다리’는 ㉢이 아니라 다리⁰² 「3」에 해당하는 예이다. 또한 답지에 제시된 두 단어는 다의 관계를 맺는 예이다.
- ⑤ 두 단어는 다의 관계를 맺는 예이다.

문법 05

본문 250~253쪽

-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1 문장 성분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이고, ㉡은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진 관형사절로서의 관형어이다. 부사어와 관형어는 공통적으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며 문장의 부속 성분이고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 ㉣, ㉤가 들어 있는 ①이 정답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가 필수적인 것도 있고 주어, 부사어가 필수적인 것도 있고 주어, 보어가 필수적인 것도 있다. 그

러나 관형어가 필수적인 서술어는 없다. 즉 ㉣는 부사어에만 해당하고 관형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세 자리 서술어 역시 관형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즉 ㉢ 역시 부사어에만 해당하고 관형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⑤ ㉣, ㉤가 아니다.

02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 이해를 바탕으로 비문 파악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 ‘생각’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 ‘나와 평등하다’에 주어가 빠져 있다. ‘타인이/타인도’ 정도의 주어를 써야 한 자리 서술어 ‘평등하다’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갖추어 쓴 것이 된다. ㉡: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이 주어인데 그것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주변 환경을 닦하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와 같이 써서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켜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과 형 친구를 비교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형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나와 형을 비교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 문장이다. 그러나 문장의 필수 성분이 빠져 있거나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② ㉢: ‘민다’의 피동사로서 ‘민기다’나 ‘민어지다’를 쓸 수 있는데 불필요한 이중 피동 ‘민겨지다’를 사용한 문장이다. 이 역시 군더더기 표현이지만, 문장의 필수 성분이 빠져 있거나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④ ㉣: 안길철 속에서 주어에 쓰이는 ‘은/는’은 ‘이/가’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류의 역사가 ~”로 수정해야 한다. 이 역시 비문이지만, 문장의 필수 성분이 빠져 있거나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⑤ ㉢, ㉤이 아니다.

03 관형사절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 우리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으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부사어이다.
- ㉣: 친구가 그 소설가를 알고 있으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주어이다.
- ㉤: 내가 가방에 이름을 적어 놓았으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부사어이다.
- ④: 학생들이 키가 크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주어이다.
- ㉤: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므로 관형사절 속에서 생략된 것은 목적어이다.